



NO.2156

하늘 마음



2024년 9월 29일

연중 제26주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칼 하인리히 블로흐의 <산상설교>



입당송

주님,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에, 당신은 진실한 판결에 따라 저희에게 그 모든 것을 하셨나이다.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저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소서.

제독서 민수 11,25-29

회답송

-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를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당신의 종도 이 가르침 익히리니,
이를 지키면 큰 상급 받으리이다.
저도 모르는 허물 누가 아오리까?
숨겨진 저의 잘못 씻어 주소서. ◎

- 오만한 자에게서 당신 종을 지켜 주소서.
제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흠 없이 살며,
크나큰 죄악에서 깨끗해지리이다. ◎

제2독서 야고 5,1-6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 ◎ 알렐루야.

복음 마르 9,38-43.45.4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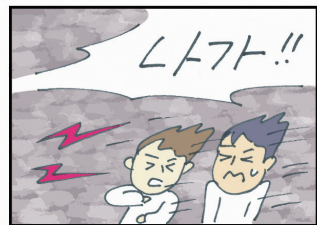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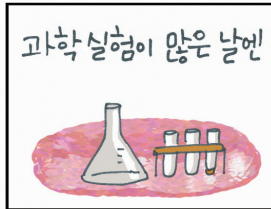
영성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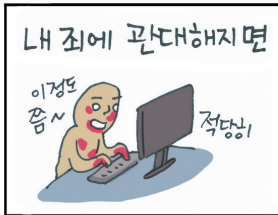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날으는 CYA

엄현아 안젤라 | zzz-h@hanmail.net





복음자리

2024년 9월 29일 | 연중 제26주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마르 9,38-43.45.47-48)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마르 9,40. 43)

새겨보기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타인을 판단하는 대신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타인을 단호하게 판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을 판단할 때면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죄를 저지르면 그것을 자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빠져들려는 모든 가지를 자르는 것만이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서 복음과 모순되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내 삶에서 무엇을 자르시기를 원하시는지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타인들은 환영하고 우리 자신을 경계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 청해야겠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약함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STEP 1.** 오늘 복음 내용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STEP 2.** 내 삶을 오늘 복음에 비추어 생활 속 이야기를 써보아요.

 **STEP 3.** 주님께 바치는 나의 기도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적어보아요.